

야구 손으로만 하니?... 우리 발로도 한다!

삼성·롯데·kt 장점인 도루 통해 점수 획득
도루, 득점 중요 루트 중 하나... 상대 압박



삼성 라이온즈의 김상수가 2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뛰는 자와 잡는 자의 대결이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kt wiz는 8일 KIA 타이거즈와의 방문 경기에서 '발 야구'로 승리를 낚았다. kt는 올해 팀 도루 40개를 기록해 삼성 라이온즈(49개), 롯데

자이언츠(41개)에 이어 이 부문 3위를 달린다. 허삼영 삼성 감독의 '뛰는 야구' 방침에 따라 삼성 타자들은 부상에 나가면 쉽지가 않다. 구자욱·김상수(이상 7개), 박해민·

김지찬(이상 6개), 타일러 살라디노(5개) 등 뛸 수 있는 선수가 즐비하다. 롯데에서도 민병현(9개), 안치홍(8개), 덕슨 마차도(6개)가 호시탐탐 2루를 노린다.

곧바로 득점권 기회를 만드는 도루는 득점에 이르는 중요한 루트 중 하나다. 투수와 포수의 심리를 흔드는 효과가 대단하다. 도루할 선수가 많다는 건 팀의 큰 자산이자 상대방을 압박하는 위협적인 무기다.

8일 현재 시즌 273경기에서 나온 도루는 328개로 작년 270경기의 380개보다 14% 줄었다. 대신 희생번트는 작년 150개에서 올해 165개로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한 시즌이라 더욱더 부상을 더 경계해야 한다는 점 탓에 도루가 준 것으로 보인다. 무더위에 중장비를 걸치고 게임을 뛰는 포수들은 더욱더 피곤하다.

도루 허용 책임을 온전히 포수에게만 물을 수 없지만, 도루 저지율이라는 냉혹한 지표는 포수에게만 해당한다.

현재 도루 저지율 1위는 4년 총액 125억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양의지(NC 다이노스)로 58.5%라는 압도

적인 기록을 냈다. 양의지는 292%이닝 동안 마스크를 쓰고 7차례 도루를 허용하고, 10번이나 주자를 잡았다.

2위도 같은 팀의 김태균(44.4%)이다. 9번 중 4번 도루를 저지했다.

NC가 선두를 질주하는 데에는 안방을 견고하게 지키는 '포도대장' 둘의 공헌도도 크다.

10개 구단 주전 포수로 한정하면 도루 저지율 30%를 넘는 이는 양의지와 강민호(삼성·39.1%), 김준태와 거의 비슷하게 출전하는 정보근(롯데·38.1%) 등 세 명에 불과하다.

들이 합쳐 12번만 도루를 허용한 NC와 달리 최하위로 처진 SK 와이번스와 한화 이글스는 각각 52번, 51번이나 도루를 허용해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키움 히어로즈와 롯데는 소속팀 포수들이 많이 허용한 도루를 타자들이 그 이상으로 훔쳐 상쇄한다.

중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동력에서 가장 위태한 팀은 KIA다. 팀 도루가 17개에 그칠 정도로 박찬호, 김호영을 빼곤 될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주전 포수 한승택의 도루 저지율은 18.8%로 낮다. 연합뉴스



제주대학교 해양스포츠센터는 지난 8일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2020년 전통놀이 진흥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통놀이 학술적 개념 정립 필요

2020 전통놀이 진흥 세미나
제주대 해양스포츠센터 주최

'2020년 전통놀이 진흥 세미나'가 제주대학교 해양스포츠센터(센터장 체육학과 김덕진 교수) 주최로 지난 8일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열렸다.

'전통놀이의 현황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체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 김재우 교수는 '전통놀이의 의미와 문화적 가치'라는 발표를 통해 전통놀이에 대한 학술적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국체육대학교의 하용용 교수는 '한국전통놀이의 계승: 민속 놀다리기 계승과 지역 축제로서의 가능성'이라는 발표에서 '동국세시기'에 등장하는 제주와 전통 놀다리기 형태인 '조리회'의 존재를 제시하며 지역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역설했다.

충북대학교의 옥광 교수는 해외 전통놀이의 현황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를 통해 영국, 일본, 스페인, 중국, 브라질, 독일, 북유럽 국가 등에서 행해지는

전통놀이 축제 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동덕여자대학교의 이현정 교수는 '학교 체육에서 전통놀이의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교육과정 속 존재하는 전통놀이의 현황을 분석하고 학교 체육에서 전통놀이가 확산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의 손환 교수는 '전통놀이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전통놀이 관련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와 함께 제주대학교 해양스포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놀이를 활용한 스포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제주대학교 해양스포츠센터는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돼 향후 6년 간 전통놀이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조선기자

제주Utd, 부천FC잡고 1위 올라갈까

오는 12일 오후7시 홈 경기
1위 수원FC와 승점 1점차
남 감독 "팀 분위기 좋다"

한 제주는 이후 패배를 얻은 채 1부 리그 승격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경기를 앞두고 공민현, 임동혁 등 부천 출신 선수들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공민현은 최근 FA컵 포함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몰오른 득점 감각을 선보이고 있다. 중앙수비수 임동혁은 최근 '슈트라이커(수비수와 스트라이커 합성어)'로 변신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정조국은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6월 20일 충남아산 원정경기(2-0 승)에서 선제골을 터트리며 K리그 역대 10번째 공격포인트 150개(득점 121·도움 29)를 달성했던 정조국은 이번 경기에서 도움 한 개를 추가하면 K리그 역대 51번째 30-30 클럽 가입자가 된다.

남기일 감독은 "팀 분위기가 좋아 어느 팀과 붙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손은범기자 seb1119@halla.com



'누가 헤딩왕인지 겨뤄보자' 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노우에서 열린 2019-2020 라리가 36라운드 에스파뇰과 홈 경기에서 에스파뇰의 베르나르도 에스피노사(사진 중앙)와 라울 드 토마스가 바르셀로나의 세르지 로베르트(왼쪽)와 헤딩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4경기 째 침묵 중'인 손흥민
본머스에 '아홉수 탈출' 도전

'본머스 킬러' 손흥민(토트넘)이 골 침묵을 깨고 네 시즌 연속 정규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다시 도전장을 내민다.

손흥민이 활약하는 토트넘은 한국시각으로 10일 오전 2시 영국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본머스와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9호골에 묶인 손흥민은 '악재' 본머스를 상대로 최근 4경기 연속 침묵한 득점포를 가동

해 네 시즌 연속 정규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따내겠다는 의지가 크다.

이번 시즌에도 손흥민은 정규리그 25경기를 치르는 동안 9골 9도움을 기록하며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최근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지 못하면서 '아홉수'에 묶인 형국이다.

33라운드 에버턴전에서 골키퍼 위고 로리스와 다투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손흥민은 안 좋았던 분위기를 털어내고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특히 본머스는 최근 4경기 동안 무려 12실점을 할 정도로 뒷맛이 허술해 손흥민으로서선 절호의 기회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텍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0,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텍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1급~6급)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기형, 와이텍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기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텍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텍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로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텍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대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텍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텍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텍스 보청기

이 제품은 '연료'가 아니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9-041800079

와이텍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